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

손영석

새해 2014년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이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이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축전장과 잇닿아 있는 승리자의 진군이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에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신년사》 2014년 1월 1일 단행본 8페이지)

우리 나라가 정치군사강국으로 된 조건에서 경제강국을 건설하게 되면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사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할수 있게 된다.

우리가 건설하려는 경제강국은 막강한 경제력에 의거하고 물질적부가 풍족하며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이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은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에 의거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학기술이자 경제강국이라고 말할수 있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에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과학기술이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

이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경제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기때문이다.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생활은 유족하고 평등한 물질생활과 힘든 로동에서 해방된 로동생활을 진행하는것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은 물질적부에 대한 인민들의 다양한 수요가 원만히 보장된 유족하고 평등한 물질생활이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평등한 물질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는 물질적부는 생산의 빠른 발전에 의하여 보장되며 생산의 빠른 발전은 생산력의 발전에 의하여 보장된다.

생산력의 발전은 사람의 지적힘의 발전에 의하여 규정되며 사람의 지적힘의 발전이자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현시대에는 정보설비에 의거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이 진행되는 정보산업의 시대이다. 기계산업시대에 쓰이었던 설비와는 달리 정보설비는 사람의 두뇌기능까지 일부 대신하는 최첨단설비인것만큼 이러한 설비는 최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창조될수 없다.

인간에 의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하여 보다 능률적인 정보기술수단들이 창조되고 그것이 물질적부의 생산에 도입되면 될수록 더 많은 물질적부가 창조되게 되며 인민들은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인민들에게 유족한 물질생활을 보장해주려면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은 근로자들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로동의 본질적 차이가 없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된 로동생활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고있는 조건에서 노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이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게 되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생활이 보다 원만히 보장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과도적사회로서 노동의 차이가 남아있게 되며 그 차이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 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의 차이,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들은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과 노동조건에서의 차이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과 노동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면 노동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노동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려면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기술혁명을 다그쳐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현대화, CNC화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CNC화가 실현되면 인민경제의 생산과 경영활동이 정보설비에 의하여 진행되여 노동의 본질적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근로자들이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생활을 보장해주자면 나라의 과학기술을 빠른 기간안에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과학기술이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현존경제토대, 경제구조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오늘의 현실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 경제구조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그것이 최대의 은을 내게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은 과학기술이 원료와 자재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생

산설비들을 정비보강하며 생산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생산방법을 개선하는 등 당면한 경제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선 원료, 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원료와 자재, 연료와 동력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장성한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봉쇄책동으로 하여 필요한 원료, 자재를 충분히 대주지 못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서 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당면한 경제활성화는 물론 경제강국건설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따라서 현시기 생산정상화를 위한 원료, 자재, 동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원료, 자재, 동력에 대한 방대한 수요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자연원료생산이 장성함으로써 해결된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자연부원개발사업을 잘하여 자체의 원료, 연료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그 매장량도 방대하다. 지질탐사에서는 지하자원의 량과 종류, 매 광물자원의 특성과 그 채굴기간, 채굴조건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조사장악하여야 한다.

지질탐사는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조건에서만 급속히 발전할수 있다. 새로운 지질탐사방법인 항공사진조사법, 지전기화학적탐사방법을 비롯한 과학적인 탐사방법과 현대적기술수단의 도입은 탐사효률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게 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전망성 있고 풍부한 자연부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 탄발을 미리 조성하기 위한 사업 등은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할 때 홀

를히 진척될수 있다.

원료와 자재, 연료와 동력에 대한 방대한 수요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가공원료, 합성원료생산이 장성함으로써 해결된다.

오늘 화석원료가 고갈되어가고있는 조건에서 여러가지 합성수지와 합성섬유, 합성고무가 대량적으로 생산되고 그것이 경공업제품뿐아니라 기계설비를 만드는데 널리 쓰이고있으며 그에 따라 기계설비가 경량화되고 성능이 높아져 그 기술공정이 단순화되고있으며 생산과 기술발전에서 합성원료가 노는 이러한 역할은 더욱더 높아지고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현재 우리 나라에 없거나 부족한 원료, 자재들을 우리 나라의 자연원료를 가지고 가공, 합성하게 함으로써 긴장한 나라의 원료, 자재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준다.

원료와 자재, 연료와 동력에 대한 방대한 수요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전력생산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남으로써 해결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현존전력생산기술을 더욱 완성시켜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갈수 있게 한다.

지금 있는 발전설비들을 잘 정비보강하고 만부하로 돌리는것은 전력생산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예비이다. 특히 성능이 낮은 낡은 화력 및 수력발전설비들을 성능이 높은 새로운 발전설비들로 개조하여 수차효률을 높이기만 하여도 적지 않은 전력을 더 생산할수 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을 넣으며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원을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자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또한 생산설비들을 정비보강하고 더욱 완성시켜나가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현존생산설비들의 생산능력을 원상복구할수 있게 한다.

현존생산설비의 원상복구는 물리적으로 마멸된 낡은 생산설비를 원래의 수준으로 보수만 하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부 부분품과 장치들을 현재 도달한 보다 선진적인 새로운 부분품과 장치들로 바꾸어 설비의 능력을 한층 더 높이는 적극적인 설비개조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물론 낡은 설비들을 단번에 교체할수도 있지만 현 조건에서는 개미가 뼈다귀를 깎아먹는식으로 야금야금 하나씩 개조하는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것은 새로운 현대적설비로 단번에 교체하는데 비하여 자금을 적게 들이고도 설비의 능력을 높일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현존생산설비들을 현실적조건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생산설비로 교체만 한다면 투자도 보상하지 못한채 설비갱신을 진행하므로 투자의 경제적효과를 높이지 못하는 비경제적인 현상을 빚어내게 된다.

그러므로 현존생산설비의 원상복구는 기본적인면서도 중심고리로 되는 부문들과 부분품들을 새로운 현대적인것으로 개조하며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설비를 갱신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산설비들을 더욱 개선완성할수 있게 한다.

생산설비를 개선완성한다는것은 낡은 생산설비를 보다 능률적인 현대적생산설비로 갱신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생산설비의 현대화, 정보화이다.

현시대에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

의 시대이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존생산설비의 갱신은 현대화, CNC화된 정보설비들의 갱신으로 되어야 한다.

정보설비는 사람의 일부 기능까지도 대신하는 현대적설비로서 이러한 정보설비는 높은 과학기술의 발전 즉 정보기술의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또한 생산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생산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조화로운 균형이 보장되고있다. 그러나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비추어볼 때 그에 토대하여 새로운 생산부문을 창설하거나 기술공정을 보충하는 등 아직도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는데서 많은 과업들이 제기되고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토대하여 새로운 생산부문을 창설하고 기술공정을 보충하며 수입원료와 연료를 쓰는 공업부문들을 자

체의 원료와 연료를 쓰는 공업으로 개편하는것은 생산부문구조를 완비하는데서 우리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생산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는 사업도 과학기술에 기초할 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비능률적인 생산방법을 보다 선진적인 새로운 생산방법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고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해주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함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을 확고히 담보해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이자 경제강국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강국건설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한다.